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④ 〈사자후경〉

〈중아함〉은 계빈국 구담승가제바의 번역으로 60권 222경이 있고, 〈맛지마 니까야〉는 152경으로 되어 있다. 짧은 에세이 정도의 길이를 지닌 가르침으로 사성제, 12인연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인연과 비유. 불교수행의 목적인 열반과 수행법으로 제자들이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다. 중아함 제 5권에서 3, 사리자상응품, 24경인 〈사자후경〉에서 제자를 대하는 다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위국 급고독원에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안거를 마치며 경행할 때, 사리불이 만행(萬行)을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불자를 만들고,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들과 반열반에 들지 못한 수행자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를 해탈시켜 반열반의 세계에 들게 해야 한다며 흔쾌히 허락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리불은 즉시 떠났다. 몇 시간 후, 평소 수행을 잘 하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오만방자하게 부처님께 따졌다. 사연인즉, 안거기간동안 사리불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힘들었지만 대중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해제 때까지 기다렸는데 포교하러 만행을 갔다는 말을 들으니, 부처님이 사리불을 과대평가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자의 말을 듣던 부처님은 즉시에 사리불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난존자는 도량에 남아있는 제자 500명에게 오늘 총명한 사리불이 이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의 설법, 사자후를 할 것만 같으니 이 멋진 법문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며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했다.

드디어 강당으로 들어온 사리불에게 부처님은 왜 도반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는가 물으셨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부처님처럼 살고자 서원한 제자입니다. 그런 제가 부처님 뜻과 반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업신여기며 누구를 제도하고자 만행을 나가겠습니까. 불교를 만나기 전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뿔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뿔 잘린 온순한 소처럼, 두 손을 잃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하게 된 겸손한 전타라자 동자처럼, 예전의 고통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들이 뿔 없는 소에게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고 먹을 것을 주며 사랑하고, 두 손을 잃은 동자에게도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를 보살핍니다. 새삼 옛날 고통을 기억하고 원한과 성냄으로 남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한량없는 선행을 닦으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또 자연인 땅(地)과, 물(水)과 불(火), 그리고 바람(風), 마당을 쓰는 빗자루, 모든 것을 다 닦는 걸레도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 즉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만나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 더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목욕하지 않으면 몸 곳곳에서 악취가 날 것이니 제가 늙지 않고 영원히 청춘으로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속히 공부해서 몸에 대한 애착을 여의고 수행할 것을 서원하고 있사옵니다. 결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에게 상처 입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부끄러웠다. 다시는 사랑과 미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겠다하자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 도반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신다.

상처 입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려 상수제자를 불러들이는 부처님의 모습은 니편 내편 따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니 너무도 든든하고 자애롭다. 사리불도 그 제자도, 함께 지켜본 아난과 500명의 제자들이 소통과 화해를 뛰어 넘는 수행자의 길을 열어가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련해진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분별심을 부처님에게 바쳐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③ 선지식과의 만남

백 박사님 가르침의 골자는 〈금강경〉에 있었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아침저녁 직접 석가여래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라(信). 〈금강경〉을 독송하되 뜻을 알려고 하면서 독송해라. 뜻을 알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알아질 것이다(解). 그 다음 〈금강경〉을 실천해라(行). 〈금강경〉의 실천 방법은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다.

실천의 구체적인 핵심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쳐라"하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금강경〉의 실천이다. 실천하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이며, 지혜가 날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깨달음과 지혜가 참다운 깨달음 참다운 지혜인가를 선지식한테 내놓고 검토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금강경〉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통한 공부라는 가르침인 것이었다.

그리고 〈금강경〉 실천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다거나 밉게 보인다면 사랑스러운 것 또는 미운 존재가 참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말고 모두 자신의 마음이요, 분별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마음 밖에 사람이나 사물은 내 마음 속 분별심의 결과일 뿐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데 언제인가 조계사 법당에서 들었던 심외무법 법외무심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상대에게 붙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떨어지게 한다면, 잃어버린 제 정신을 다시 찾음으로 지혜가 난다는 말씀이요 난제에 해답을 얻는 다는 말씀이었다.

정확한 해답을 알게 된다는 것은, 붙은 마음의 소멸 즉 갈등의 분별심이 사라진 결과라 할 것인데 분별심이 사라지고 지혜가 나타난 상태를 〈깨침〉 또는 〈깨달음〉이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분별이 사라지면 작은 깨침이 되고 작은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 작은 지혜가 나타나면 영웅호걸이 되는 것이고 큰 분별심이 사라지면 큰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때 도인이 되고 견성성불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춘천에서 군대생활(R.O.T.C 제3기)을 할 때였는데 주말이 되어 선생님을 찾아 뵈오면 "그간 깨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곤 하셨다. 즉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깨쳐진 것, 알아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처럼 군생활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번민을 부처님께 바치니, 척박한 군생활이 기쁨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껄끄러웠던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 지기 시작하였다. 군대 제대가 가까워 왔다. 집안 형편을 보면 나는 당연히 제대와 동시에 취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마음속의 지혜를 발굴해내는 방법을 듣고 보니 이러한 공부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처럼 생각됐다. 이 두 마음으로 갈등 하다가 선지식께 장래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었다. "선생님, 제가 2개월 후면 군에서 제대를 합니다.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출가해서 선생님 문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 까요?"이런 질문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는 선지식이라면 당연히 "당분간 법당에 출가하여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배워라"라고 하실 것이다. 또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취직 해라"고 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라는 선지식의 답변은 의외였다.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마음 속에 정답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말씀이었다. 마음 밖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정답을 찾기보다는, 데이터로 인한 갈등의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결국 제대와 동시에 갈등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지혜를 발굴하는 출가생활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대분심, 깨달음 얻겠다는 마음

대분심(大忿心)은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욕망의 굴레서 벗어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인신난득(人身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이라고 했다. 해석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더 어려운 것인데, 금생에 이몸을 받았을 때 불도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생에 다시 인간몸 받을 것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잡아함경〉에 보면 맹구부목(盲龜浮木)이란 말도 있다. 눈먼 거북이가 1백년마다 한번 떠올라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조그만 판자에 뚫린 구멍 속으로 목을 내미는 것보다 인간 몸 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다. 그 보다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 중에서도 참선문에 들어오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며, 활구 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는 육도윤회의 굴레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금강보검(金剛寶劍)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생겁래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 못하고 생사고해의 바다서 해매고 있을까? 깊고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뼈에 사무친 분심(忿心)이 있어야 이 참선문에 들어 올 수 있다. 피기장부아역이사(彼己丈夫我亦已俟)라고 했다. "네가 장부면 나도 역시 장부다"라는 기개와 용기를 가져야 원력이 쌓이고 히말라야 정상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삼계윤회에 오르고 내림이 우물 속의 두레박처럼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벗어나기 어렵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어려운 생사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풀어야할 영원한 숙제이니 금생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인간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겠는가?

> '이 뭣고'는 육도윤회서 벗어날 수 있는 금강보검
> 뼈에 사무친 분심 있어야 이 참선문에 들 수 있어

선도대사송에 인간총총영무중(人間??營衆務) 불각년명일야거(不覺年命日夜去) 여등풍중멸난기(如燈風中滅難期) 망망육도무정취(忙忙六道無情趣)라고 했다.

"인간이 바쁘게 일에 끄달려 묵숨이 줄어 드는 것을 알지 못하네, 바람 앞 등불이 위태 하건만 육도에 바빠 정처가 없네"라는 뜻이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 쫓기며 허망한 경계에 탐착해 헐떡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무상한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욕심으로 가득 채워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다 무상하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분명 그것은 뒤늦은 후회일 뿐인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대분심을 통해 화두참구에 철저해야 한다.

화두(話頭)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께서 자신이 깨달은 본래면목을 목전(目前)에 훤히 들어내 보인 것이다. 사중득활(死中得活)이란 말처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힘을 당해 크게 한번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대분심으로 활구 참선법인 '이 뭣고'를 생활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금생 성불은 보장된 것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 모든 농작물이 말라죽게 되자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는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가뭄이 해소되자, 그 비법을 인디언에게 물어보니,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도 금생에 성불의 원력을 세웠으면 그것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하루, 100일, 1000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온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고 정진해 일생을 마친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반야심경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김형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 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각과 개강일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